

## 외국인 근로자의 즐겨찾기



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김 판 기

튀니지에서 시작한 재스민의 불길이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을 퇴진시켰고, 리비아를 내전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예멘, 바레인, 알제리, 요르단에서도 거센 물결이 일고 있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넘보고 있으며, 중국에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급격한 변화의 소식이 들려오는 곳곳마다 한국인 근로자의 철수문제가 관심기사로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의 외국진출 역사는 자의든 타의든 전쟁포로로 잡혀간 고대사의 선조들로부터, 당나라와 교류한 신라의 장보고, 금당벽화를 일본에 남긴 고려인 담징, 임진왜란과 일제시대, 일본에서 일한 많은 선조들, 그리고 독일에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 인력, 낯선 미국, 일본, 호주 등지에서 고생하는 한인 근로자까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외국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한국인 근로자 덕에 오늘날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1,168,477명이다. 물론 이중에 미등록 체류자도 15.2%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2010년 총 근로자 수를 13,76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

자가 8.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임금상승, 그리고 3D 업종 기피경향으로 이를 대체할 근로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민족이라고 자랑하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빈자리를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 별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47.5%)이고, 뒤를 이어 미국(10.5%), 베트남(7.8%), 일본(4.1%), 필리핀(3.9%), 태국(3.8%), 몽골(2.6%), 인도네시아(2.6%), 대만(2.3%), 우즈베키스탄(1.8%), 기타 국가로 구분된다. 이들 중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2005년 경기도 화성의 LCD 부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여성근로자의 노말렉산 중독사건, 2006년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TCE 중독 사망사고, 2006년 인조피혁 제조업체 DMF 간독성 사망사고, 2008년 정비공장 중국인 근로자의 TCE 중독 사망사고처럼 매스컴 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건 이외에도, 이미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외국인 재해자의 특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40%, 30인 미만 사업장을 합하면 전체의 81%가 된다. 같은 해의 외국인 사망근로자는 38%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면 전체의 70%가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와 사망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의 이유가 된다.

외국인 재해자는 67%가 입사 6개월 미만이었으며,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66% 역시 입사 6개월 미만이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평균 10.6시간으로, 77.6%가 8-12시간 근무하고 있고, 69.2%가 주당 6일 동안 일하고 있다. 평균수입은 60% 가량이 100-149만원, 건강검진은 54.8%만이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이 호소하는 주요 작업관련성 질환은 근골격계 건강장애와 소음노출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과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하여는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면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포함하여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로 이어지는 7단계를 밟게 된다. 사업 배치 이후 6개월 동안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교육에서 산업보건안전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보건안전에 관하여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는 그리 다양하지 못하다.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기관인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는 7개 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 외국인근로자 관련 홈페이지는 한국어와 영어가 제공된다. 정작 MSDS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보건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는, 영어로 제공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MSDS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가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의 icon은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뜰 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그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선조, 한인 근로자의 아픈 과거를 되물리는 슬

픈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세계는 열린 지구촌이다. 지구촌의 똑똑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여, 이들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전략이고, 정부의 역할이 되고 있다.

지구촌의 유능한 인재가 즐겨 찾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노력은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